



발행일 2025.03.10.(월) 발행인 정인용 본부장 홈페이지 <http://교육공무직.com> 연락 02)6959-6522

본 소식지를 학교 내 모든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 선생님에게 회람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평등한 일터 쟁취하자! 교육공무직에게 평등한 돌봄권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월 7일 전국 각지의 시·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평등한 돌봄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육아지원제도 없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이를 규탄하였습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맞아 교육당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녀 양육·돌봄에서 차별받으며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버겁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지 않고 출산·육아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은 출산·육아정책과 여러 지원제도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하고 교육공무직의 온전한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차별 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를 위한 구호를 외치며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고 평등한 일터와 세상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전국 시·도 교육청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